

동네방네

영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시행

8월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영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



영양군청 전경

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영양군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종합민원과 지적담당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광주·전남 무역수지 154% '굉충'

5월 7억9600만달러... 흑자 기록 전년동월비 수출 30.5% 감소 수입, 48% 감소한 17.8억달러

지난 5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54.3% 증가한 7억9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5월 광주·전남 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0.5% 감소한 25억8300만 달러, 수입은 47.5% 감소한 17억8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9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3억1300만 달러 대비

154.3% 증가한 수치다.

지난 4월 코로나19 여파로 무역수지가 전년에 비해 71.6% 감소한 2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84.3% 늘었다.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수출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20.9% 감소했고 수입은 21.3% 감소해 무역수지 기준 27억 9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34억4700만 달러)에 비해 18.9% 줄어든 수치다.

광주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9.5% 감소한 7억4600만 달러, 수입은 0.4% 감소한 5억11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억3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51.2%), 반도체(19.4%), 가전제품

(32.6%), 기계류(50.0%), 타이어(51.7%)가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14.7%), 기계류(10.6%), 고무(18.7%)가 증가한 반면 가전제품(50.0%), 화공품(23.7%)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1% 감소한 18억3700만 달러, 수입은 55.9% 감소한 12억7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6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화공품(29.3%), 석유제품(42.8%), 철강제품(49.8%)이 감소했고 수송장비(98.6%), 기계류(363.8%)는 증가했다. 수입은 원유(65.5%), 석탄(35.3%), 석유제품(77.9%), 철광(32.7%), 화공품(54.7%) 등이 모두 감소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꽃으로 힐링'... 예천군, 생활원예반 개설

예천군농업기술센터는 29일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생활원예반 우리꽃연구회 신규회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꽃을 활용한 분경 꾸미기 ▲꽃다발 만들기 등 7월 13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12월 7일까지

총 4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자는 예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원예소득팀으로 하면 된다.

/예천(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

고양시, 드론실증도시 위한 발판 다진다

드론 활용 인프라진단 서비스 발굴 시기술 드론 접목 '귀가안심도우미' 지난 4월 항공안전기술원과 협약

고양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시작됐다. 고양시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귀가안심도우미 및 인프라 진단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발굴·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확대한 실증 사업이다.

고양시가 추진하는 귀가안심도우미 서비스는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와 인공지능(AI)기술을 드론에 접목해 주변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인프라 진단 서비스는 드론 촬영을 통해 맨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도로의 싱크홀(지반침하) 사고, 건물 외벽 등의 파손 부위를 진단하고 위험 요소를 예방·제거하는 서비스다.

고양시는 이를 위해 최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및 드론 전문기업 2곳과 고양종합운동장, 식사동 한 사찰 인



고양시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시행한다.

근 도로에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비행을 진행했다.

고양시와 진흥원은 지난 4월 한국항공안전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 달에는 귀가안심도우미 실증 비행이 진행되는 5개 동 행정복지센터(식사동, 고봉동, 고양동, 화전동, 탄현동)를 방문, 사업 안내를 진행했다.

인프라 진단 서비스를 위해서는 고양종합운동장(고양도시관리공사 안전지원팀), 킨텍스(킨텍스 시설운영팀),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도로관리팀) 등을 방문, 비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귀가안심도우미 서비스는 화전동 등 고양시 5개 지역에서 시나리오 실증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인프라 진단 서비스 중 도로 진단은 고양시 자유로와 백석동 도로에서, 시설진단은 고양종합운동장과 킨텍스에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사업의 실증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고양시 전역에서 귀가안심도우미 248회, 드론 활용 인프라 진단 서비스 270회 등 총 500회 이상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부산시, 평화통일 꿈꾸는 청년서포터즈 모집

행사 홍보·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부산시는 평화통일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와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활동할 '2030 평화통일 청년서포터즈'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평화통일 청년서포터즈'는 2030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해 부산시의 평화통일 관련 주요 사업, 행사 등을 블로그,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특히 청년서포터즈는 ▲평화통일박람회 ▲평화통일 교육 워크숍 ▲평화통일문화행사 ▲남북교류협력세미나 등 올해 개최되는 주요 행사를 다양하게 홍보하고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안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부산지역 대학생 및 청년은 6월 29일까지 부산시 홈페이지



2030 평화통일 청년서포터즈 포스터

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로, 활동 기간은 7월부터 12월 까지다. 참여 시 자원봉사시간 인정, 수료증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

광주시, 연산지구 배수개선 국비 133억 확보

광주시는 국지적인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었던 광산구 연산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배수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133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광산구 연산동, 남구 구소동 일대의 152ha에 달하는 농경지가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

광주시는 농식품부의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국비 133억원을 투입해 실시계획 후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배수로 정비, 배수문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수개선사업은 홍수발생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50ha 이상 저지대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배수

로정비, 배수장 등을 설치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액 국비사업이어서 신규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하고, 사업의 특성상 시·군 단위의 농촌지역(농업진흥구역) 위주로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주시는 해당 농경지의 침수예방과 영농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수차례 방문해 타당성을 설명해 왔다.

광주시는 지난 2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광산구 요기지구를 신규 지정받아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전남도 ICT연구센터 지원사업 선정

전라남도는 순천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Grand ICT연구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8년간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는다 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중소·중견기업과 대규모 산학협력 공동연구를 통해 ICT 분야 지역혁신 인재양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전략을 활용해 지역기업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전국 5개 권역을 선정, 전남에서는 순천대학교가 호남권역 거점센터로 최종 선정됐다.

/전남=양수영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7일 (수) 음력: 4월 26일. 수도권 날씨: 29~20°C. 지역별 날씨: 백령도 16/23, 파주 17/28, 인천 20/26, 수원 20/29, 평택 19/29, 연천 18/30, 동두천 18/30, 가평 17/30, 서울 20/29, 양평 18/29, 용인 20/29.